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⑪ 우리나라의 찻그릇

中 제자기술 습득… 자체 찻그릇으로 발전

우리나라에서 차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대략 7세기인 통일신라 시기이다. 당으로 유학을 다녀온 선종 구법승들에 의해 전해진 차는 주로 부처에 대한 공양물로 사용돼 오다가 대렴(大廉)이 중국으로부터 차 종자를 들여온 시점(828)인 9세기 초를 전후로 차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제자(製瓷) 기술이 완성되지 못했던 통일신라에서는 중국의 월주요(越州窯)나 형요(越窯) 등에서 다완을 수입했다. 이 다완들은 육우(陸羽)가 〈다경(茶經)〉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체가 낮고, 측면이 직사선을 이루며 넓어지는 형태로서 덩이차(餠茶)를 자다법(煮茶法)으로 마실 때에 차와 차거품을 함께 마시기에 편리했다.

고려시대에는 제다(製茶)와 탕법(湯法), 다구(茶具) 등 모든 방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는데, 고려 초기청자의 생산 기종 대부분이 다완이었다는 점은 중국에서도 천하제일이라 찬하였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 고려청자의 제작이 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려의 초기 청자는 육우가 예찬한 월주요 자기의 형태와 제자기술을 이식한 것으로 알려져 차 문화와 함께 양자 간의 연관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123년 고려에 사신으로 온 북송의 서긍은 고려의 다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송에서 하사한 것 이외에, 상인들도 와서 (차를) 판매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제법 좋아하여 다구(茶具)가 훨씬 정연해졌다. 금화오잔(金花烏盞)·비색소구(翡色小甌)·은로(銀爐)·탕정(湯鼎)은 모두 중국 제도를 흉내 낸 것들이다.

– 서긍(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중

위의 금화오잔(금빛 장식의 검은 잔)은 흑유잔을, 비색소구(비취색의 작은 사발)는 청자 다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대 송에서는 단차의 새하얀 차색을 돋보이게 하는 건요의 감흑색 토호잔(兎毫盞)을 최고의 다완으로 여겼다. 고려 유적에서도 건요를 비롯한 중국제 흑유잔이 출토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고려청자 잔들 중에는 흑유잔처럼 잔의 전면이나 외부를 검은 철 안료로 시유한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청자 잔들을 살펴보면 그 형태나 비례가 단차를 점다하기에 기능적으로 특화된 흑유잔과 닮아있다. 아마도 청자 생산이 주류였던 고려에서는 청자를 사용해 단차를 마시기에 적합한 다완을 제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고려 중기로 접어들면 기체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잔에 깊이감이 더해진 형태의 다완이 제작되기 시작한다. 이는 다완에 찻가루를 넣고 끓인 물을 부은 다음 다시(茶匙)나 다선(茶筅)으로 휘저어 풍성한 차 거품을 만들어 내기에 유리한 구조이면서도 다완을 손으로 감싸 쥐거나 구연에 입술을 대었을 때 거슬림 없이 부드럽고 편안한 형태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청자양각국화문완.

통일신라 중국 다완 수입 의존
고려시대 비약적인 발전 이뤄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차를 탕(湯)이나 약(藥)으로 기록한 바가 있는데, 이는 차를 가루 내어 마시지 않고 찻잎을 우려서 마시는 음다(飮茶) 방식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청자 중에는 뚜껑이 있는 통형의 잔(有蓋筒形盞)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종류의 차를 담아 마셨을 것으로 추정한다. 차를 가루 내어 섭취하는 자다법이나 점다법과 다르게 찻잎을 우려서 마시게 되면 향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차와 음다 방식이 공존하면서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찻그릇들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새 왕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변혁이 이뤄졌다. 그 중 하나였던 숭유억불 정책과 함께 불교 승려와 고려 왕실을 중심으로 주도되어 온 차 문화는 쇠락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차 문화는 불교 승려들에 의해 잔존하여 명맥을 이어갔고, 차는 승려들과 학문적으로 교유하던 선비들에게 탐미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의 차 문화를 재창하고 부흥시킨 다인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초의 선사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이다.

잔은 설백색이 가장 좋고, 푸른빛이 도는 백색 잔도 차색을 손상시키지 않으므로 그 다음으로 친다.

〈다신전〉은 초의가 〈만보전서(萬寶全書)〉에 수록된 명대 장원(張源)의 〈다록(茶錄)〉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정리한 글이다. 초의 선사(1786~1866)는 역대 다서들을 연구함으로써 '초의차'를 완성하여 조선의 제다를 정립했는데, 이는 찻잎을 덖어서 만드는 '산차(散茶)'였다. 산차는 끓인 물을 다관(茶罐)에 찻잎과 함께 넣고 우려낸 다음 찻잔에 따라서 마신다. 때문에 명이나 청과 마찬가지로 맑고 투명한 차색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줄 수 있는 백자가 가장 좋은 찻잔으로 여겨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진의 차 문화를 동시대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내재화 시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차 문화 수용 초기에는 찻그릇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내 중국의 제자기술을 습득하여 자체적인 찻그릇의 생산을 이뤄냈다. 이는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나 유럽 등에 비해 수세기를 앞선 독보적인 발전이었으며, 한국의 수준 높은 차 문화와 탄탄한 향유 층의 존재를 방증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㉒

1. 불교의 4대 성지 가운데 부처님이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하신 장소는?

① 룸비니 ② 뉴델리 ③ 사르나트 ④ 붓다가야 ⑤ 쿠시나가라

해설 : 룸비니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이며, 뉴델리는 인도의 현 수도이다. 사르나트는 바라나시와 묶여 말할 수 있는 근접지로 초전법륜이 일어난 곳이다. 붓다가야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 쿠시나가라는 열반하신 곳이다.

2.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바친 사람은?

① 찟따 장자 ② 욱가 장자 ③ 빔비사라왕 ④ 수닷타 장자 ⑤ 나쿨라피타 장자

해설 : 빔비사라왕은 수행자이던 태자에게 부처님을 이루면 꼭 자신을 다시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태자가 깨달아 부처님을 이루시고 나타나자 바로 사찰을 지어 기부하니 이것이 최초의 사찰인 죽림정사였다.

3.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흔히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한다.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온갖 맹수와 위험이 도사리는 밀림을 헤매던 사람이 강가에 다다랐다. 강 건너편을 보니 넓은 들에 온갖 곡식과 과일이 풍성했다. 그곳은 갑자기 튀어나와 뒷덜미를 무는 맹수도 없고, 슬금슬금 목덜미를 기어오르는 독충도 없고, 손과 발을 할퀴는 독초도 없는 곳이다. 지금 겪고 있는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려면 강을 건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강물은 깊고 차갑고 거세게 소용돌이 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을 건너려면 튼튼한 배를 만들고, 거친 물살을 타는 지혜를 갖추고, 노를 부지런히 저어야 한다."

① 맹수와 독충은 삶의 고통을 비유한 것이다.
② 지혜로운 뱃사공은 수행자를 비유한 것이다.
③ 튼튼한 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이다.
④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는 것은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⑤ 깊고 세찬 강물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을 비유한 것이다.

해설 : 불교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위와 같은 비유로 잘 설명한다. 특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은 피안에 이른다고 하여 도피안(到彼岸)이라 하며, 인도말로 파라미타, 즉 바라밀이라고도 한다. ④와 같이 저 언덕에 다다랐다면 바라밀이 완성된 것으로 죽음이 아니라 열반의 성취를 비유하는 것이다.

4. 다음에 나타난 사상과 거리가 먼 것은?

훌륭한 미술가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흐(Gogh)의 그림도 어린아이의 붓장난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세하고 정교하게 연결된 세계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지, 마음 내키는 대로 허공에 선을 그어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① 이것과 저것은 본래 나뉜 것이 아니고, 나뉜 적도 없으며 나눌 수도 없다.
②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비롯한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③ 둘로 구분 지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사고방식은 끝없는 분열과 투쟁을 초래한다.
④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한쪽을 우선시해야한다.
⑤ 상대의 신념과 주장을 악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악을 먼저 눈여겨 살펴야 한다

해설 : 불교의 대표적 실천인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正見), 즉 바른 인식이다. 바른 인식을 통해 세계의 참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불이(不二)의 인연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기에 이것과 저것은 본래 나뉜 것이 없으며, 이것과 저것이라는 둘로 구분지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분열과 투쟁을 멈출 수 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을 자신과 둘이 아니라고 보기에 상대의 신념과 주장에 앞서 자신의 악을 먼저 살피게 된다. 불이로서 바라보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둘 중 하나의 취사선택이라는 것은 할 수 없다.

5. '나를 비운다'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나를 비워야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② 나를 버려야 하므로 나는 세상에 없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③ 어딘가 버려야 할 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버리면 행복하다.
④ 나는 발라드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러한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까지 버리는 것이다.
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아집을 버린다는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설 : 불교에서 나, 자아 등은 임시적인 것으로 자동차가 바퀴와 차체와 문,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중에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비슷하다. 즉 나는 여러 인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인연 중 하나만을 나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나를 구성하는 인연 중 번뇌가 되는 인연인 아집(나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은 버려야 하며, 나의 일상생활 전반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정답 : 1. ③ 2. ③ 3. ④ 4. ④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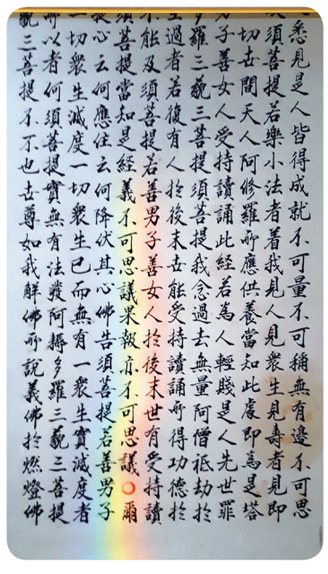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